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6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73:25-28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25장(새 2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0번(새 15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거짓 사랑에 미혹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한마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사랑의 부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고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14:21-24 인도자
- 찬양(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사랑과 계명

- 봉 헌(offering) 362장(새 21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69장(새 218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이번 UMC 총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금지 항목을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UMC 교단은 성소수자 목사 안수 및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과 주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3. 오늘 친교 후 성경공부실에서 임시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11:2-3

신앙의 위기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붓물 터지듯 생겨납니다. 크고 작은 일상에서 이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으로 쉽게 짜증 내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복음 14:21-24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21-23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나는 그분의 말씀을 무겁고 힘들게 느낍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까?

❖ 모든 관계의 기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또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역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사랑할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며 그의 모든 삶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무겁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원리를 알고 나면 이보다 더 모순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 발휘될 때는 다름 아닌 사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죽음도 불사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계명도 그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불리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